

성남에 있는 장애우시설 다사랑 마을 나들이!

3.1절을 맞아 민족의 얼을 되새기고자 독립기념관과 아우내장터를 방문하여 일제치하에서 독립을 위해 목숨을 바친 독립운동가들을 생각하며 감사함을 느끼고 왔습니다. 병천순대국도 먹고 오랜만에 나들이를 하여서 다들 좋아했습니다. 후원해주시고 걱정 해주셔서 이렇게 다녀올 수 있었습니다. 우리 소망의 샘터에 언제나 좋은 일이 가득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작성자: 다사랑 마을 최상구 / 작성일: 24-03-26 14:38



오랜만에 성남에 있는 식구들과 오곡밥과 나물을 만들어 함께하기로 약속한 날 아침은 그야말로 설국이었습니다. 갑작스런 폭설로 겨울왕국이 되어 길도 미끄럽고 차도 많았지만 걱정할 여유 없이 달려가 오랜만에 같이 했습니다. 식구들은 회장님께 세배하고 용돈도 받고, 생일인 재희는 케익에 홀릭되어 밥 안먹구 케익만 먹겠다 구 하여 한바탕 웃었습니다.

시설에 사무장인 원장님 아드님은 원장님과 똑같은 부위의 암 수술을 하고 의료계 파업으로 병원에서 해출 수 있는 게 없다는 이유로 퇴원을 종용 하여 몸 여기저기에 호스를 부착하고 집에서 누워있었습니다. 코로나도 다 이겨내고 여기까지 왔는데....휴...하시는 원장님의 힘겨움이 아직도 뇌리에 남아있습니다. 모두모두 건강하세요^^



나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일이며,
세상을 바꾸는 힘입니다.



후 * 원 * 계 * 좌

* 국민 | 656501-01-250453

* 농협 | 387-01-011911

예금주 | 소망의샘터



DdM 또는 NAVER, ZUM 등에서
소망의샘터.kr를 검색하세요.



공익법인 소망의샘터

2024 봄호



소망과 사랑이 가득한
샘터사랑들



행복은 자신이 가진 것의 양이 아니라, 내면적인 만족과 조화에 더 의존합니다!!

춥고 힘들었던 만큼 겨울의 추위를 녹여주는 봄을 많이 기다렸습니다. 봄봄봄~기다리고 기다리던 봄. 드디어 꽃망울들이 가지개를 활짝 펴는 계절이 왔어요. 저희 식구 생일날에 파티를 하고 초를 부는데 두 손을 꼭 잡고 다들 아프지 않고 건강하고 행복하게 지낼 수 있도록 기도하는 모습이 기억에 남아있습니다. 식구들이 작년부터 연말아 코로나, 독감, 그 이후 요새는 감기에 걸려 자주 아프데 서로 걱정해주는 게 마음이 쓰이지만 그래도 저희는 열심히 회복하고 있고 하루 하루를 소중하게 보내기 위해 프로그램을 하며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려고 노력 중입니다. 편 마비가 온 친구는 하루도 빠짐없이 근력운동을 하면서 의지를 불태우고 있습니다. 2023년 힘들고 정신 없이 빠르게 지나갔지만 2024년에는 아프지 않고 즐겁고 행복한 시간들로 채워졌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감기, 독감 조심하시고, 빨리 뵈 수 있는 그날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

사랑의집에덴 원장 김동원



♡♡ 확인되지 않는 후원자님을 찾습니다. ♡♡

소망의센터 계좌로 보내주신 분들 중 정보가 없는 분들이 계십니다. 감사인사도 드리고 기부금 영수증 보내드리려고 하거든요. 바쁘시더라도 사무실로 전화 한번 주세요.

T. (032)541-4737 / F.(032)541-473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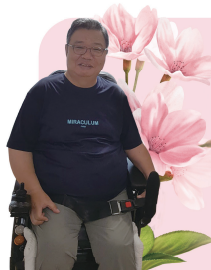
입금자 성명 (존칭 생략)

김재효 10,000원 김민아 20,000원 장정근 50,000원 조대홍 50,000원
 000 50,000원 김도희 10,000원 우민선 30,000원 김종근 10,000원
 김일심 30,000원 쌍 20,000원 서정란 20,000원 장용희 50,000원
 김승영 30,000원 김기백 50,000원 김동진 20,000원
 행복하세요 50,000원 수고하세요 50,000원 양의문교회1남전도부 100,000원

사랑 빵빵 영양 빵빵!!



2024년3월22일 봉사대원 일동은 적십자 사랑의 빵나눔사에 참여했습니다. 초보자도 만들 수 있는 단팥빵 230개와 소보루빵 230개를 만들어 독거노인택에 나눠드렸습니다. 부드러운 겉과 달콤한 단팥은 노인들의 입맛을 사로잡았고 마음을 홀리기에 충분했습니다. 평소 입맛도 밥맛도 없다고 하셨던 어르신들... 빵을 반기시며 그 어느 방문보다 행복한 웃음을 보이셨습니다. 빵은 맛뿐만 아니라 옛 추억도 떠올리게 하며 따뜻한 감정을 갖게 해주는거 같아요. 우리들의 이벤트가 무료하신 어르신들의 하루를 달콤하게 만들어 드렸던 모두가 기쁜 하루였습니다^^



오랜만에 방명록에 들어왔어요. 인경하세요!!
 날씨가 점점 따뜻해 집니다. 언제나 어려운 이웃을 섬기는 마음을 주님께서 늘 기뻐하실 겁니다.
 항상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길 기원합니다.

근육병환우 / 차영남

모범 선행 구민상!

강산이 두 번 변하는 동안 저는 소망의센터에 있었습니다. 여기 강산이 두 번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아니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회적 지원과 기회균등이 비켜간 늙고 병들고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과 태어날 때부터 장애로 버림받은 사람들... 아무리 복지가 좋아졌다고 하여도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은 뿌리부터 잎새까지 가난합니다. 가난을 이어받은 자식들 또한 교육,의료,주거 등의 기본적인 서비스에 접근하기 어려워 부, 모를 돌아볼 겨를이 없습니다. 그냥 다른 이들의 도움으로 힘겹게 사시다가 세상을 떠납니다. 제가 20년을 이곳에 있으면서 본 세상입니다. 무엇을 잘 했다기보다 오래 있다 보니 상을 주시네요.^^ 그동안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린 것처럼 앞으로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모든 분들께 감사드려요.

봉사자 서영은



분주한 아침시간

소망의센터에 조금이나마 힘이 되길 바라며 함께 독거노인들에게 설 명절 선물 배달을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조금은 쌀쌀한 날씨지만 설 명절을 맞아 홀로 힘들게 생활하시는 어르신들께 선물과 세뱃돈을 준비해 찾아보았습니다. 보호자도 돈도 없지만 나라에서 임원시켜주시는 눈물 나게 고맙다 하시는 할머니, 홀몸도 버거운데 홀로 손자를 키우시는 할머니, 암이란 걸 알지만 돈 없이 해볼 수 있는 게 없어 눈물로 견디고 있는 아주머니, 실 값이 버겁다 하면서 수세미 뜨개질을 해서 나눔을 실천하시는 안한자이신 할머니, 봉사자분의 말씀으로 어제 전화 땀 건강하셨던 노인들이 갑자기 중환자실에 입원하시는 경우도 있다고 하니 노인들의 건강은 밤새 안병이라는 말이 맞는 거 같네요. 소망의센터에서 도움을 받고 계신 것이 감사하다 시며 더 힘든 분 드렸으면 해 지인께 받은 쌀 20kg을 나눔 하신 어르신도 계셨네요. 오늘 봉사활동에 참여해 보니 힘드신 분들도 많으시고 소망의센터 봉사자님들 정말 수고가 많으신 것 같아요. 모두 건강하시고 모두가 행복한 세상 만드는 일을 계속해서 이어 가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봉사자 성미경

